2024. 5. 20.(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19일 오후 12: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 금융감독원 공동 배포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금융투자과장	김윤하	2133-8547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나형선	2133-5290
금융투자정책팀장	이원창	2133-5309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투자유치전 열고, 세계은행과 국제개발협력 모색

- 16일(목), 뉴욕에서 서울시-금융감독원-금융회사 협업 해외 투자유치전 펼쳐
- 매력적인 소비시장, 우수한 인적자본 앞세워 글로벌 금융기관 서울 유치에 속도낼 것
- 14일(화), 세계은행 부총재와 국제개발협력사업 논의…개도국 도시 문제해결 지원강화
- 강 부시장,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위상 높이고, 글로벌 선진도시의 책임 다할 것

□ 서울시(강철원 정무부시장)는 금융감독원,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한국거래소, 한국투자공사, 금융권(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 현대해상)과 함께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를 알리는 투자유치전을 5월 16일(목) 뉴욕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뉴욕 투자유치전(IR)은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현장으로, 한국 금융 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서울시를 대표해 참석한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뉴욕 투자유치 현장에서 '글로벌 혁신 경제허브, 서울'을 소개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오전 개회식 연설을 통해 "서울은 경제와 문화의 강력한 브랜

드 파워를 보유한 도시”라며, “인구 천만의 메가시티인 서울은 매력적인 소비 시장과 유능한 인적자본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강조했다.

□ 이날 뉴욕 투자 유치전에는 칼라일그룹,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자산운용사와 해외 투자자 및 주뉴욕총영사관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시는 현장에 참석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면담을 통해 서울의 외국인투자전담기구인 ‘인베스트서울’을 소개하고, 서울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였다. 또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며 해외 금융기관 유치 활동을 펼쳤다.

○ 인베스트서울은 2022년 출범한 서울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세무,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후속 투자유치 솔루션 제공 등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서울국제금융오피스는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시설로 해외 금융기관의 한국 진출을 위해 사무공간을 지원하며,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국내 금융 및 생활 환경 안내, 여의도 소재 금융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협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 한편, 시는 금융중심지 서울을 홍보하는 투자유치전에 앞서 5월 14일(화), 워싱턴 D.C에서 유르겐 보겔(Juergen Voegele) 세계은행 부총재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서울의 정책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1]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서울 ODA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세계 속에서 높아지는 도시의 위상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선진도시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 '서울 ODA챌린지'는 빠르게 압축성장해 온 서울시의 도시 개발 및 도시 운영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유사하게 겪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이다.

○ 지난 4월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개모집에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31개국 95개 도시가 지원하였으며, 이 중 3개 도시(페루 리마, 캄보디아 프놈펜, 스리랑카 콜롬보)가 해당 사업 지원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발되었다.

<서울시-세계은행 협력 현황>
- **(업무협약)** 서울시-세계은행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MOU체결('14.9.24)
- **(기술지원)** 탄자니아 BRT 실시설계 구축 등 총 9개국 118억원 사업수행
  - 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도시교통 혁신기술 도입사업(KGGTF) 등
- **(정책공유)** 서울시-WB 페루 리마시 교통워크숍 개최 등 총 84회 3,582명
  - KGGTF(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 10주년 기념행사, 시(市) 정책사례 발표('22.12) 등

□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한국 금융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금융중심지로서의 강점을 알리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 도시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세계 5위의 금융중심지로서 도약하기 위한 입지를 다지고, 글로벌 선진도시로의 책임과 역할을 통해 개발도상국 도시와 동행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지겠다."고 말했다.**

붙임. 뉴욕 IR 2024 현장 사진

---

1)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OECD에서 지정한 수원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개도국 및 국제기구 등에 하는 원조

붙임	**뉴욕 IR 2024 현장 사진**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뉴욕 현지에서 진행된 공동IR에 참석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중심지 서울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 대표,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간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